

## 大寶律令 施行에 따른 일본사회의 변용과 한국목간

Transformation of Japanese Society by Enforcement of Taiho Codes(大寶律令) and Korean Wooden tablets(木簡)

---

저자 (Authors)	鐘江宏之, 정지은 Kanegae Hiroyuki, 정지은
출처 (Source)	<a href="#">목간과문자 22</a> , 2019.6, 127-136 (10 pages) <a href="#">Wooden Documents and Inscriptions Studies 22</a> , 2019.6, 127-136 (10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목간학회</a> The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Wooden Documents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749618">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749618</a>
APA Style	鐘江宏之, 정지은 (2019). 大寶律令 施行에 따른 일본사회의 변용과 한국목간. 목간과문자, 22, 127-13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5 10:25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大寶律令 施行에 따른 일본사회의 변용과 한국목간

鐘江 宏之 著<sup>\*</sup>

정지은 譯<sup>\*\*</sup>

## I. 문제제기

## II. 大寶律令 시행 전과 시행 후 목간의 차이점

## III. 7세기 문화의 基調

## IV. 향후 과제로서의 호적제 검토

## V. 일본역사 연구에서 한국목간의 의의

### 〈국문초록〉

8세기 초 大寶律令 시행에 의해 일본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검증하는 데에는 사회 변화의 실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출토 문자 자료가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대보율령 시행 전후 목간에서 보이는 다양한 관행이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큰 변혁이 있었음을 증명한다. 대보율령은 唐의 율령을 모범으로 편찬되었으며, 그 체계는 중국율령에서 唐에 이르며 형성된 행정 체계를 계승하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대보율령이 시행되기 전인 7세기의 목간은 한국에서 출토되는 목간과 여러 유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대보율령 이전 시대의 목간문화는 한반도 諸國과 문화적으로 공통되는 관행을 가진 사회에서 시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7세기 일본에서는 遣隋使나 遣唐使가 파견되어 중국과 직접 왕래하였지만, 당시의 문화는 한반도 諸國으로부터 배운 것을 基調로 하고 있다. 이러한 당시 문화의 다양한 면을 검토하는 데 있어 목간은 귀중한 자료이다. 일례로 戶籍制度를 배경으로 한 戶口의 이동을 기록한 목간에 의해, 7세기 호적제도가 8세기 초 이후에 전환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반도 諸國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7세기에는 호적제도도 한반도의 여러 제도와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목간자료에 의해 보다 해명이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제나 신라와의 목간문화에서의 공통

\* 日本 学習院大学文学部 教授

\*\* 동국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성을 규명함으로써 일본의 7세기 사회의 다양한 면들이 명확해질 것이다. 한국목간의 존재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측면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7세기에서 8세기로의 전환을 새로운 시점에서 검증하기 위한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명한 일로 여겨지는 일본의 7세기 역사상도 점차 수정을 촉구해 가고 있다.

▶ 핵심어: 대보율령, 7세기, 호적, 일라관계(라일관계)

## I. 문제제기

필자는 지금까지 日本에서 律令制에 의해 국가 운영 기구가 성립된 시기에 文筆이나 書類의 사용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몇몇 주제의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들 연구 주제는 大寶律令 시행 이후 율령제라는 틀 안에서 公式令 체계와 관련하여 존재하는 몇 가지 규정에 대한 것이다. 대보령 이후의 공식령의 존재 양태를 고려하면, 令文의 규정 자체는 唐令의 條文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 시행되던 서류의 사용 모습은 唐과 일본이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대보율령에 의해 정치가 행해진 일본 사회와 唐의 사회를 비교해 보면, 조문 형성의 배경이 되는 관료 조직 등이 다르기 때문에 조문을 그대로 시행할 수 없었던 점도 확인된다.<sup>1)</sup>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7세기 말 일본에서는 唐과 거의 동일한 율령을 제정하도록 편찬을 하여 대보율령을 완성시키게 된다.

대보율령에 의해 唐과 유사한 제도가 규정되기 이전의 행정 제도에 대해서는 적어도 대보령제 하에 唐의 제도와 다른 부분의 경우에 대보율령 제정 전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7세기의 일본 사회에서는 다양한 부분에서 唐과 다른 면이 있었다고 생각된다.<sup>2)</sup> 이렇게 다른 사회에서 唐과 거의 같은 체계를 지향하게 된 것은 언제였을까, 또 이를 지향하게 된 사정이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점은 큰 의문이다.

이 의문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법으로서의 율령조문 자체가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701~702년에 시행된 대보율령까지는 부분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자료가 있지만, 그 전의 淨御原令은 남아 있지 않아 7세기 단계의 율령조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7세기대의 제도를

1) 鐘江宏之, 1997, 「計会帳作成の背景」, 『正倉院文書研究』 5, 吉川弘文館; 2002, 「公式令における「案」の保管について」, 『日唐律令制の諸相』.

2) 鐘江宏之, 2010, 「藤原京造營期の日本における外来知識の撰取と内政方針」, 『東アジア海をめぐる交流の歴史的展開』; 2011, 「日本の七世紀史」再考, 『学習院史学』 49.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대한 사료상의 서술과 그 시대에 사용되던 유물로부터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에 필자는 7세기대의 목간 등의 文物을 중시하여, 이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지금까지 노력해왔다. 本稿 역시 이러한 입장에서 목간에서 확인되는 것들을 정리하고, 동아시아에서 대보율령 성립에 얽힌 문제의 해석을 바탕으로 한국목간 연구의 의의에 대해 서술해보고자 한다.

## II. 大寶律令 시행 전과 시행 후 목간의 차이점

일본 고대의 목간은 대보율령제 시기의 목간과 그 이전의 목간에서 아래와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 ① 年紀의 차이

- 대보령제 이후에는 연호(元號) 사용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그 이전은 干支를 사용하였다.<sup>3)</sup>

### ② 문서목간의 차이

- 대보령 이전에는 이른바 前白樣式의 上申文書가 널리 발견되나, 대보령제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다.<sup>4)</sup>
- 대보령 이전에는 문서를 한 줄로 바깥부터 안으로 기재한 문서목간이며, 木簡 표면에 기재된 정보의 작성 형태에 대해서는 그다지 생각하지 않았다.<sup>5)</sup>
- 대보령 이후에는 목간에 정보를 배치하는 방법을 볼 수 있다.<sup>6)</sup>

이러한 차이점을 보면, 정어원령제까지의 사회에서 목간을 사용할 때의 관행과 대보령제 이후 사회에서 목간을 사용하는 관행은 기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많았던 게 아닐까 추측된다. 목간의 사용에서 이러한 관행의 차이는 정어원령제에서 대보원령제로라는 제도의 전체적인 구조가 推移하는 시기와도 맞닿아 있으므로 이 변천에 수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각각의 구조 사이에서의 문화적 차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차이가 어디서 유래하는지를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3) 岸俊男, 1980, 「木簡と大宝令」, 『木簡研究』 2: 1988, 『日本古代文物の研究』, 塙書房; 鐘江宏之, 2018, 「大宝建元とその背景」, 佐藤信編『律令制と古代国家』, 吉川弘文館.

4) 東野治之, 1983, 「木簡に現れた「某の前に申す」という形式の文書について」, 『日本古代木簡の研究』, 塙書房; 早川庄八, 1985, 「公式様文書と文書木簡」, 『木簡研究』 7: 1997, 『日本古代の文書と典籍』, 吉川弘文館; 市大樹, 2010, 「前白木簡に関する一考察」, 『飛鳥藤原木簡の研究』, 塙書房.

5) 鐘江宏之, 1998, 「七世紀の地方木簡」, 『木簡研究』 20.

6) 鐘江宏之, 1998, 위의 논문.

한편, 일본 고대 목간 중에서는 [앞서 언급한 목간보다도] 앞선 시기의 일본목간과 한국목간 사이에 유사한 특징이 발견되기도 한다.

A. 荷札木簡의 유사성

·일본에서는 앞선 시기의 荷札 중 아랫부분에 칼집이 난 사례가 있는데, 한국에도 이러한 형태의 荷札木簡이 있다.<sup>7)</sup>

B. 문서목간의 특징

·일본에서 대보령 전에 많이 보이는 전백양식 목간과 유사한 문장 표현이 한국목간 중에도 발견된다.<sup>8)</sup>

C. 干支에 의한 年紀

·일본의 7세기 목간에서는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간지에 의한 年紀가 나타난다. 한국에서도 간지에 의한 연기 사례는 많이 알려져 있다. 한반도의 방식이 7세기 전에 일본 사회에 전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 무렵에 중국은 연호로 기재하는 것이 당연한 시기였다.<sup>9)</sup>

애초에 일본사회에서 文筆 기술이 사용된 것은 한반도로부터 일본에 전해진 데에서 시작되었다고 여겨진다.<sup>10)</sup> 게다가 일본의 목간 사용 문화는 7세기가 되어서야 정착된 게 아닐까 생각된다. 목간 등 출토 문자 자료로서 알려진 유물의 양을 보더라도 6세기 이전으로 판단되는 출토 문자 자료는 극히 적어서, 일본사회에서의 본격적인 문자의 정착을 6세기까지 올려다보긴 어렵지 않나 싶다. 이렇게 일본사회에 정착하기 시작했을 시기의 것으로 보이는 7세기 목간 사용 문화는 위에서 서술하였듯이 한반도 諸國의 목간 사용 문화와 공통 요소가 매우 많다는 점에서도, 한반도의 목간문화에 가까운 형태의 것이 일본 열도 내에 침투하고 정착한 것은 아닐까 싶다. 그리고 일단 7세기에 정착한 스타일인 한반도 諸國과 공통되는 요소가 많은 목간 사용 문화였던 것이 대보울령제가 시행되면서 다른 방식(流儀)의 목간 사용 문화로 전환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현상이 701년경에 발생한 것은 아니었을까.

---

7) 平川南, 2003, 「屋代遺跡群木簡のひろがり」『韓国・城山山城木簡』, 『古代地方木簡の研究』, 吉川弘文館.  
8) 李成市, 1996, 「新羅と百濟の木簡」, 平野邦雄・鈴木靖民編, 『木簡が語る古代史』上, 吉川弘文館; 1997, 「韓国出土の木簡について」, 『木簡研究』19; 市大樹, 2014, 「都の中の文字文化」, 平川南編, 『古代日本と古代朝鮮の文字文化交流』, 大修館書店: 2010, 앞의 논문  
9) 岸俊男, 1988, 앞의 논문.  
10) 平川南編, 2000, 『古代日本の文字世界』, 大修館書店.

### III. 7세기 문화의 基調

이와 같은 목간 사용 문화의 전환은 대보울령 시행과 함께 다양한 문화적 관행에 대한 개혁의 一環이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한국목간과 공통된 면이 많은 목간문화에서 다른 기준의 목간문화로, 나아가는 방향이 변화한 것이다. 그 기준은, 대보울령제 사회의 형태에서 생각해보면 울령제의 본격적인 도입(중국적인 여러 제도의 본격적 도입)에 수반하여 행해진 사회 변혁 현상 중 하나는 아니었을까. 단적으로 말하면, 한반도와 공통되는 요소가 많은 것에서 중국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을 필자는 이 시기의 「한반도 방식에서 중국 방식으로의 전환」이라고 주장해 왔다.<sup>11)</sup>

물론 다른 연구자가 지적한 것처럼 7세기까지 일본으로 중국에서 유래된 다양한 문명이 전해져 온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한반도에도 전해진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 직접 유입된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경유해서 일본사회에 들어온 것일 가능성이 높다. 더 앞 시기에 중국의 것이 한반도에 이미 들어와 있다가, 7세기까지 일본에 전해졌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되는 대보울령제 도입기의 변혁은 옛 시기의 중국 문명에 準拠하는 것이 아닌, 같은 시기 중국의 다양한 것들을 중국에서 직접 유입한 현상이 발생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점이다.<sup>12)</sup>

일본에서 遣隋使·遣唐使의 문화사적 역할의 한 형태로, 7세기까지 견수사·견당사는 유학생을 보낼 수도 있고, 직접적인 외교도 가능했을 것이나, 대보울령제 이후의 형태와 비교해보면 [중국에서] 가져온 것을 그 시대의 일본사회에 곧바로 도입하는 일은 반드시 가능하지만은 않았다.<sup>13)</sup> 7세기 사회의 관행이나 문화의 기초는 한반도로부터 배웠던 다양한 문명의 체계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런 관행이나 문화의 기초가 정착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것은 다양한 문화적 측면을 망라하여 검토 및 검증될 필요가 있지만, 당면한 과제로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는 목간이므로 여기로부터 검증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1) 鐘江宏之, 2008, 『律令國家と万葉びと』, 小学館; 2011, 위의 논문; 2010, 위의 논문.

12) 大隅清陽, 2008, 「大宝律令の歴史的位相」, 大津透編, 『日唐律令比較研究の新段階』, 山川出版社는 정어원령제는 “넓은 의미의 울령”으로서 신라의 울령제와도 공통되는 단계이며, 대보울령의 완성에 의해 “협의의 울령” 단계가 달성된다고 평가했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이해로써 넓게는 같은 현상에 대해 주목한 지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필자는 그것이 직접적으로 중국을 첫 번째로 인식해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백제나 신라와 같은 한반도의 문화를 의식하고 도입하면서, 이러한 문화를 닮아가며 일어나는 변화에 의해 생기는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3) 지금까지 7세기 일본사회는 견수사나 견당사에 의한 교류가 시작되며, 중국에서 직접적인 문화적 도입이 일어나고, 그에 따른 여러 제도가 정비되어 왔다고 이해되나, 遣使나 유학생의 귀국 후에 곧바로 울령 편찬이 시작되지 않은 것은 중국 울령제를 모방한다는 생각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견수사·견당사의 활동과 중국 울령제의 도입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향후 보다 상세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IV. 향후 과제로서의 호적제 검토

아직 많은 과제가 있으나, 이들의 향후 과제 중 하나로서 호적제도의 검토를 [사례로]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목간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례로는 후쿠오카현(福岡県) 코쿠분마츠모토(国分松本) 유적의 戸口 이동에 관해 기록된 목간의 검토가 있다.<sup>14)</sup> 이 목간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sup>15)</sup>

[アカ]

· 「鳴評 戸主建了身麻呂戸又附去建□×

[万呂カ]

政丁次得□□平氏次伊支麻呂政丁次×

[戸カ]

『鳴□□

占了恵[ ]川ア里占了赤足戸有□□×

[廣カ]

小子之母占了真□女老女之子得×

□□□』

[建了万呂戸カ]

穴凡了加奈代戸有附□□□□□□占了×

□□

[建カ]

· 「并十一人同里人進大武建了成戸有 戸主□×

[有カ]

同里人建了咋戸有戸主妹夜乎女同戸□□×

[人カ]

麻呂損戸 又依去同了得麻女丁女同里□□×

白髮了伊止布損戸 二戸別本戸主建了小麻呂□×

14) 이미 坂上康俊, 2017, 「鳴評戸口變動記録木簡をめぐる諸問題」, 『木簡研究』35이 이 목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정리하고 고찰을 더하고 있다. 앞으로 이 논고를 출발점으로 하여, 더욱 다각도에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자료라고 생각한다. 본고의 단계에서는 아직 필자도 충분한 검토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의 과제로 삼고 싶다.

15) 坂上康俊, 2017, 위의 논문, p.131.

기록되어 있는 용어로 보아 685년 正月부터 701년 3월 사이에 적힌 것으로 판단된다. 7세기 말에 지쿠젠국(筑前国) 시마노효(嶋評) 호구의 이동에 관해 기록된 목간이 있는데, 호구의 기재 방법에도 시대적인 특징이 있다. 현재 일본에 남아 있는 호적 중 가장 오래된 大寶 2년(702) 호적에는 御野型和 西海道型の 두 가지 다른 양식이 보이나,<sup>16)</sup> 이 목간에 보이는 호구 기재 양식은 御野型에 유사한 면이 많다.<sup>17)</sup> 즉, 西海道에서도 御野型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御野型 호적 양식이 西海道型 양식보다 오래되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대보율령과 함께 西海道型이 일본사회 속에 들어온 것이라면, 이는 좀 더 唐에 가까운 형태의 것이 새로이 들어와서 그간의 御野型에서 새로운 양식으로 옮겨간다고 하는 전환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御野型 호적 양식이 대보율령제 도입 전보다 오래된 형식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한반도와 공통된 문화적 기조인 시대의 것으로서 중요하다. 7세기의 호적이 어떠하였는지, 人民을 파악하는 방법이 어떠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재료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설을 전제로 판단하자면, 庚寅年籍이나 庚午年籍은 한반도에서 배운 양식으로 작성된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상정해볼 수 있다.

물론 코쿠분마츠모토 유적의 목간으로부터 알 수 있는 7세기 말 호적제도의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중국적인 호적제도의 요소가 어느 정도 보인다는 평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 장에서도 서술하였듯이, 7세기 말 단계라면 필자는 한반도 문명과의 관계 쪽이 중요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다. 만약 역사적인 평가에서 필자의 견해가 약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료의 잔존 등의 조건에서 7~8세기 중국의 제도 쪽이 한반도 諸國의 제도보다 잘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일 것이다.

코쿠분마츠모토 유적의 목간에 대한 고찰이 심화되기 위해서는 향후 비교자료로서 당연히 일본 국내의 7세기 人民 파악에 관계된 자료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목간 자료 속에서 이러한 人民 파악 방법을 파악하는 쪽을 기대하고 싶다. 7세기 人民 파악 방법이 일본과 한반도 諸國 사이에서 과연 어느 정도 공통되는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V. 일본역사 연구에서 한국목간의 의의

그렇다면 일본사회는 대보율령 제정 무렵에 한반도 방식을 기조로 한 모습에서 왜 唐의 방식을 기조로 하는 방향으로 바뀌려 한 것일까. 이는 동시기 대보율령을 제정하려고 했던 정치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의 사고 방식의 문제이며,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은 대보율령 제정을 주도했을 후지와라노 후히토(藤原不比等)라고 추정된다.<sup>18)</sup> 이 전환의 주도자는 아마도 이러한 전환이 국내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어떤 의미

16) 宮本教, 1971, 「戸籍と計帳」, 岡崎敬·平野邦雄編, 『古代の日本』 9, 角川書店; 2006, 『日本古代の家族と村落』, 吉川弘文館.

17) 坂上康俊, 2017, 앞의 논문.

18) 鐘江宏之, 2010, 앞의 논문.

를 지니는지 알고서 의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위에서부터 의도적인 전환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

이 전환으로 일본은 자신들의 사회 기준을 한반도와 일본 열도 범위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기준에서 중국까지 포함한 세계의 기준으로 바꾸게 되었다. 한반도까지만 시야에 넣었던 세계 인식에서 중국을 추가한 범위의 세계 인식을 갖게 되면서, 일본 열도 안에서 세계관의 확대가 극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을 것이다. 동아시아 세계에서 이 의도적인 전환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일본 역사상 매우 중대한 일로 여겨야 할 사건이다.

이러한 인식에 대하여 일본 역사학계에서는 한반도로부터 배우고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아직도 다소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필자는 天武天皇期에는 신라로부터 적극적으로 선진문명을 도입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지만, 연구자에 따라서는 일본이 小帝國主義를 내세우고 있었다고 생각하므로 신라의 위에서 있었다는 의식으로부터 접근하고 있을 것이며, 신라로부터 문명을 배우고자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가끔 보인다. 하지만 유학생·학문승을 일본에서 신라로 보내거나,<sup>19)</sup> 신라에서 정치 중심에 가까운 존재이자 顧問이 될 수 있는 인재가 일본에 방문하고 있다는<sup>20)</sup> 점에서 신라와의 교류를 통하여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물론 견수사 파병 이후, 7세기 내내 중국 문명을 직접 배우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 점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체적인 형태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7세기 단계에서는 주로 한반도로부터 배워 와 한반도와 공통되는 다양한 것들을 기초로 하고 있었다고 이해해야 한다. 일본사회는 견수사 이후 착실하게 중국 문명을 섭취해 왔다는 점이 이제까지의 연구대상이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연구가 이 시기에 한반도로부터 흡수한 문명 요소 역시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아 왔다. 그러므로 이를 제대로 자각하고, 7세기 문화의 기초를 생각하면서 한반도로부터 문명의 흡수라는 부분을 수면 위로 올려야 할 때가 아닐까 싶다.

큰 틀에서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이 필자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까지 일본의 8세기 文物인 목간이나 정창원문서와 비교 연구를 위한 중국의 사료자료인 敦煌文書와 吐魯番文書를 참고삼았다. 그리고 일본의 7세기 문물로는 목간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것과 의미 있는 비교를 위해 한국목간을 제공받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재료가 되는 출토 문자 자료가 한층 더 발견되어 연구가 보다 풍부해 질 것을 기대한다.

투고일: 2019. 4. 30.	심사개시일: 2019. 5. 16.	심사완료일: 2019. 5. 28.
-------------------	---------------------	---------------------

19) 関晃, 1955, 「遣新羅使の文化史的意義」, 『山梨大学文学部研究報告』6: 1996, 『関晃著作集』3, 吉川弘文館; 鈴木靖民, 1970, 「日羅關係と遣唐使」, 『朝鮮史研究会論文集』7: 1985, 『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20) 예컨대 신라 승려 行心(幸甚)은 天武天皇의 皇子 중에서도 유력한 大津皇子의 주변에서 활약했으며(『懷風藻』大津皇子伝), 비슷한 존재가 그 외에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 関晃, 1996, 『関晃著作集』3, 吉川弘文館(初出1955年).
- 宮本救, 2006, 『日本古代の家族と村落』, 吉川弘文館(初出1971年).
- 大隅清陽, 2008, 「大宝律令の歴史的位相」, 大津透編, 『日唐律令比較研究の新段階』, 山川出版社.
- 東野治之, 1983, 「木簡に現れた「某の前に申す」という形式の文書について」, 『日本古代木簡の研究』, 塙書房.
- 鈴木靖民, 1985, 『古代対外関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初出1970年).
- 市大樹, 2010, 「前白木簡に関する一考察」, 『飛鳥藤原木簡の研究』, 塙書房.
- 市大樹, 2014, 「都の中の文字文化」, 平川南編, 『古代日本と古代朝鮮の文字文化交流』, 大修館書店.
- 岸俊男, 1988, 『日本古代文物の研究』, 塙書房(初出 1980年).
- 李成市, 1996, 「新羅と百済の木簡」, 平野邦雄・鈴木靖民編, 『木簡が語る古代史』上, 吉川弘文館.
- 李成市, 1997, 「韓国出土の木簡について」, 『木簡研究』19.
- 早川庄八, 1997, 『日本古代の文書と典籍』, 吉川弘文館(初出1985年).
- 鐘江宏之, 1997, 「計会帳作成の背景」『正倉院文書研究』5, 吉川弘文館.
- 鐘江宏之, 2002, 「公式令における「案」の保管について」, 池田温編, 『日唐律令制の諸相』, 東方書店.
- 鐘江宏之, 2008, 『律令国家と万葉びと』, 小学館.
- 鐘江宏之, 2010, 「藤原京造営期の日本における外来知識の摂取と内政方針」, 鐘江宏之・鶴間和幸編著, 『東アジア海をめぐる交流の歴史的展開』, 東方書店.
- 鐘江宏之, 2011, 「日本の七世紀史」再考」, 『学習院史学』49.
- 鐘江宏之, 2018, 「大宝建元とその背景」佐藤信編『律令制と古代国家』, 吉川弘文館.
- 坂上康俊, 2017, 「鳴評戸口変動記録木簡をめぐる諸問題」, 『木簡研究』35.
- 平川南, 2000, 『古代日本の文字世界』, 大修館書店.
- 平川南, 2003, 「屋代遺跡群木簡のひろがり」『韓国・城山山城木簡』, 『古代地方木簡の研究』, 吉川弘文館.

〈Abstract〉

Transformation of Japanese Society by Enforcement of Taiho Codes(大寶律令)  
and Korean Wooden tablets(木簡)

Kanegae Hiroyuki

In Japan, changes in practices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aiho Codes(大寶律令) are confirmed in Wooden tablets(木簡). Before the Taiho Codes(大寶律令) took effect, The 7th century's Wooden tablets(木簡) is similar to the Wooden tablets(木簡) excavated in Korea. Prior to the Taiho Codes(大寶律令), the Wooden tablets(木簡) culture has been practiced in societies with culturally common practices with various countries on the Korean Peninsula. In reviewing the various aspects of this culture at the time, Wooden tablets(木簡) are valuable materials. For example, Wooden tablets(木簡), which records the movement of family register system(戶籍制度) against the backdrop of 戶口, shows that the family registry system in the 7th century has chang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8th century. In the 7th century, strongly influenced by the Korean peninsula, the family registry system needs to consider its relevance to various systems on the Korean Peninsula.

▶ Key words: Taiho Codes(大寶律令), The 7th century, Family register system, Silla and Japan relations